

럭비 불모지 광주, 21년만에 메달 '터치다운'

〈전남고〉



지난 31일 제주 서귀포시 상방산 아래 안덕생활체육운동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럭비 남고부 준준결승에서 전남고(광주)가 천안오성고(충남)를 29-12로 누르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남고의 이날 승리로 광주 럭비는 전국체전 21년만에 메달을 안았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준결승전서 충북고에 12-22로 져 '동메달'

럭비부, 무진중과 두곳 뿐... 대학들 러브콜 쇄도

전남고 럭비가 21년 만에 전국체전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고등학교(교장 양정기)는 2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생활체육

운동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럭비 준결승에서 충북고에 12-22로 아쉽게 패해 동메달을 수확했다.

전남고는 전남 충북고에 트라이 3개와 컨버전치 1개를 잇따라 내주면서 0-17로 뒤졌다. 후반 들어서도 다시 트라이를 내줘 0-22로 끌려가다가 23분 정준호와 이영훈이 잇따라 트라이와 컨버전치를 성공시켰고, 32분엔 마장현이 트라이를 더해 12점을 따라갔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광주에서 럭비는 불모지와 같다. 럭비부는 전남고와 무진중 두 곳뿐이다. 비인기 종목인데다 경기가 과격하다보니 선수 확보가 쉽지 않다. 한 때는 뭇 선수를 확보하지 못해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선수들의 굳은 땀방울과 김형욱 감독·지장오 코치 등 지도자들의 헌신, 학교·교육청의 지원으로 살아났다.

전남고는 지난해 충무기 전국대회 동메달, 올해 7월 강진에서 열린 대통령기 전국대회 동메달 등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메달 행진이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진로도 밝아졌다. 고려대·연세대·경희대·단국대 등 메이저 대학들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당당히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형욱 감독은 "럭비의 매력은 나편 내편이 없는 노사이드(No side) 정신에 있다"며 "경기는 거칠지만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친구가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핀수영, 나갔다면 '新'

시체육회 장예솔 대회新 3·김태균 한국新 수립



장예솔



김태균

광주 수중핀수영이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며 전국체전 신기록 4개를 갈아치웠다. 광주 시체육회 소속 장예솔과 김태균이 주인공이다. 장예솔이 대회기록 3개를, 김태균이 한국 기록 1개를 새로 썼다. 이들은 출전 대회마다 신기록을 작성하다보니 '핀수영계의 사관'으로 통하고 있다.

'한국 여자 핀수영의 간판' 장예솔은 인천 문학배태완수영장에서 열린 제95회 제주 전국체육대회 수중핀수영 여자일반부 표면 100m에서 39초33으로 끝인, 종전 기록(39초85)을 0.52초 앞당겼다. 표면 50m에서도 17초41로 결승점을 터치, 자신이 세운 대회기록을 4년만에 0.14초 줄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2관왕이다.

장예솔은 또 계영 400m에서 오보송·이강희·윤미리와 함께 광주선발로 출전해 경북도청(2분43초17)에 이어 2분45초06으로 결승점을 통과, 은메달을 추가했다. 은메달에 그쳤지만 종전기록(2분45초39)을 0.33초 앞당긴 것으로 장예솔은 이번 대회에서 3개의 대회 신기록을 달성했다.

장예솔은 앞서 지난 8월 제26회 전국총합 선수권대회에서 표면 50m에서 17초33의 금빛 물살을 가르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

어 표면 100m 결승에서도 38초95로 한국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태균은 호흡잠영에서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김태균은 주종목인 호흡잠영 100m에서 31초92로 금빛 물살을 갈라 지난해 이관호(강릉시청)가 세운 한국신기록 32초23을 1년만에 0.69초 앞당겼다. 김태균은 무호흡잠영 50m에서는 14초42로 가장 먼저 끝인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해 지난해 전남체육회에서 김태균을, 올해 부산시청에서 장예솔을 영입했다.

이들은 광주시체육회에서 한술밥을 먹으면서 기량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이들은 서울체고에서 부산·경남·경북 소속의 국내 정상급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장예솔은 "푸켓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흡족한 결과가 보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태균은 "아시아게임 등 세계대회가 없어 아쉽지만 앞으로 세계신기록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장예솔과 김태균은 4일부터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시아핀수영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3일 출국한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

역도, 광주·전남에 첫 3관왕 선물

광주 박철민 105kg급 2연패·전남 이양재 105kg 이상급 대회新

볼링 최복음 6연패 등 대회 6일째 광주 33·전남 41 획득

광주는 점수가 높은 단체경기에서 선전했다. 소프트볼에서는 천하무적 명진고등학교가 전 경기 월드컵을 기록하며 우승했다.

명진고는 2일 제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에서 열린 제95회 제주 전국체전 소프트볼 여고부 결승에서 대전전지디자인고를 9-2로 제압, 5회 월드컵을 기록했다.

명진고는 1회전에서 경북 구미여상을 14-1(4회)로, 준결승전에서는 충남 천안여고를 11-1(3회)로, 준결승전에서는 충북사대부고를 8-1(5회)로 이겼다.

야구에서는 광주일고가 경기 야탑고를 준결승에서 5-2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1회 볼넷 3개와 상대 실책 등으로 3점을 먼저 뽑아낸 광주일고는 3-0으로 앞선 5회 선두타자로 나온 최승훈의 중전 안타로 추가 득점 기회를 마련했다. 땅볼과 폭투로 3루를 밟은 최승훈이 상대의 야수 선택으로 홈에 들어왔다. 2사 2루에서는 최수현이 1타 점 적시타를 때리며 5-0을 만들었다. 선발 김정현은 8.2이닝 동안 12개의 안타를 맞았지만, 실점은 2점으

로 묶으면서 결승 진출의 주역이 됐다.

럭비에서는 전남고가 준결승전에서 충북고에 패했지만 21년만에 전국체전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는 이날 육상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했다.

간판 김덕현(광주시청)은 멀리뛰기(8m04)에 이어 세단뛰기(16m38)에서도 금빛도약 했다. 배진미(광주시청)도 여자 세단뛰기에서 13m46을 뛰어 정상에 올랐다. 김우중(광주체고)은 남고부 창던지기에서 72m37을 던져 개인 신기록을 세웠다.

우수광푸에서는 전남 태극권의 서희성(동일전자정보고)·장용호(광주시체육회)에 이어 이날 산타 56kg급에서 김준열(광주시체육회)이 금메달을 더해 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전남 모두 첫 3관왕은 역도에서 배출됐다.

광주는 박철민(광주체고)이 105kg급에서 인상 145kg·용상 192kg·합계 337kg을 번쩍 들어 대회 3관왕에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전남에서는 이양재(완도고)가 105kg이상급에서 인상 170kg·용상 215kg·합계 385kg을 들어올리며 3

관왕을 차지했다. 이양재는 용상과 합계에서 대회신 기록을 세웠다.

볼링의 최복음(광양시청)이 5인조전에 이어 2일 마스터즈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여고부에서는 장하은(고흥산업고)이 3인조전과 마스터즈에서 금빛 글러기에 성공했다.

도마의 신 앙학선(한국체대)은 도마에서 15.150점을 받아 대회 4연패를 기록했다.

육상의 정준우(한국체대)는 800m(1분54초23)에 이어 1500m에서 4분00초63으로 금빛질주 했다. 백승호(삼성전자) 5000m(14분18초98)에 이어 1만m(29분36초23)에서도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해 2관왕에 올랐다. 근대5종에서는 박상구(한국체대)가 4종 단체와 개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시범종목에서 성적이 두드러졌다. 바둑에서 남자일반(박수창·최광호·정훈현·주지홍)과 여자일반(김지은·김태현·장윤정·이인숙)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상스키에서도 여고부 웨이크보드에서 임은정(해룡고)이, 태권에서는 전남 클럽의 서선영이 결급에서 첫 금을 선물했다.

전국체전 옛새제인 2일 현재 광주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55개를 획득했다. 전남은 금메달 41개, 은메달 46개, 동메달 92개를 수확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